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총파업 돌입

차별 해소 위한 노정교섭 구조 마련 촉구 ... 노조, 적극 연대 표명. “18일 총파업 선두 결의”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도 총파업대회에 참가해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며 청와대까지 함께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7월 3일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5만 3천여 명이 참가했다. 4일과 5일 지역별 파업대회를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개하는 역사상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동맹파업”이라고 밝혔다.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개하는 이번 총파업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9만여 명과 지방자치 단체와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 명이 참가한다.

이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차별 해소 ▲처우개선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 노정교섭 구조를 만들자고 요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정규직 전환과 노동 존중 사회 약속이 지지부진한 사이 차별은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은 또 하나의 계급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100만 명을 넘어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대 실제 사용자인 정부는 무책임과 회피로 파업을 부추기지 말고 노정 교섭에 나오라”라고 촉구했다.

전국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공정임금제 실시와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위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제로 약속을 자회사 전환으로 기만했다. 자회사 전환은 또 다른 간접고용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는 노

정교섭”을 촉구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청와대 앞 마무리집회 투쟁사에서 공공 비정규직 총파업에 대해 연대와 지지를 약속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4일과 5일 지역별 파업대회 금속노조 지부들이 연대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요구를 거부하면 금속노조는 7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선두에 서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이날 총파업대회에 참가한 금속노조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비정규직은 죽거나, 잘리거나, 속았다”라며 ‘일하다가 죽지 않게, 비정규직 이제 그만’이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들고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노조파괴 넘어, 일진 계열사에 금속노조 깃발 꽂는다”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총파업 8일째, 본사 경고 투쟁 ... “전면전 원하면 전면전으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회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전면 파업 8일째 날에 그룹 본사 상경 투쟁을 벌이고 전면전을 경고했다. 지회는 일진 자본의 노조파괴를 넘어 관련 계열사에 금속노조 깃발을 세우겠다고 결의했다.



투쟁하면서 조합원들이 서로 가족처럼 느끼고 있다” 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홍 조합원은 일진 자본을 향해 “사측이 공장의 진정한 발전을 원한다면 노동자를 존중하라” 라고 일침을 놨다.

김진 조합원은 “지난해 1월 연구소가 불

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7월 3일 서울 마포구 일진 그룹 본사 앞에서 ‘노조파괴 분쇄, 일진 자본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회 조합원들의 찌렁찌렁한 투쟁 구호 소리가 본사 건물을 울렸다. 경찰은 서둘러 소음측정기를 설치했다.

일진 자본의 저임금 노예노동과 노조파괴에 맞서 무기한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은 사측의 공세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강고한 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지회는 “일진 자본은 아무런 결정권 없는 사람을 교섭 대표로 내세워 타결 가능성 없는 제시안을 내밀며 교섭을 파탄 내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일진그룹의 일진은 ‘매일 전진하자’ 라는 뜻이라고 한다. 50년 동안 자본은 발전했지만, 자본의 현장 관리체계는 여전히 군사 독재 시절 같다” 라

고 비판했다. 김정태 지부장은 “일진 자본은 노동자를 이윤 생산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 전근대 노무관리를 폐기하고 노조파괴 책동을 중단하라” 라고 촉구했다.

홍재준 일진다이아몬드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일진 자본은 ‘노조가 임금 관련한 무리한 요구를 한다’, ‘노조 파업으로 회사가 망한다’ 라고 협박하고 있다” 라고 폭로했다. 홍재준 지회장은 “일진 자본은 쉽게 합의 가능한 요구안은 물론, 법률이 규정한 내용조차 단체협약에 넣기를 거부하며 교섭을 지연하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홍재준 지회장은 “일진 자본이 전면전을 원한다면 전면전으로 맞서겠다. 일진그룹 안에 있는 관련 계열사의 모든 노동자를 금속노조로 조직하겠다” 라고 경고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생생한 발언이 이어졌다. 홍 조합원은 “노조를 만들고

산가스를 불법사용하다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료들이 가슴통증 등을 호소하자, 사측은 ‘뭘 하러 병원까지 가느냐, 일이 맞지 않으면 다른 데 가라’ 는 등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조합원은 “노조는 임금인상 만을 위해 파업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흘리는 땀과 피를 존중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싸운다” 라며 “동지를 믿고 싸워 승리하자” 라고 결의를 높였다.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은 그룹 본사 빌딩에 ‘일진그룹 각성하고 노조파괴 중단하라’,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일진 자본 박살 내자’ 라고 쓴 스티커를 붙이며 노조파괴를 시도하는 일진 자본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대회·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이동했다.